

“전북 알리는데 최선”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 전북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

전북자치도는 13일 베트남 축구의 국민 영웅이자 한국 축구계의 전설적인 지도자인 박항서 축구 감독을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박항서 감독은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열정으로 베트남 축구의 전성기를 이끌어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우정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박항서 감독의 지도로 베트남은 2018년 아시안게임 4강 진출과 AFF 스즈키컵 우승, 2019년 AFC 아시안컵 8강 진출, 2019년 동남아시아 대회에서 금메달 획득하는 등 눈부신 성과를 이뤘다.

이러한 성과는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열정을 바탕으로 이룬 '원표 없는 도전'의 결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정 가치인 '도전경성'의 정신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도는 '도전경성' 가치를 바탕으로, 박항서 감독과 함께 전북의 매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2036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활동에도 힘을 보탬 계획이다.

위촉식에서 박항서 감독은 “전북특별자치도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돼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베트남과



박항서 전 베트남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사진 오른쪽)이 전북특별자치도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된 13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박항서 감독이 위촉장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의 매력과 가능성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박항서 감독은 도전과 열정으로 베트남과 한국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전북의 도전정신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그의 경험과 열정이 2036 하계 올림픽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전북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①일반부 남자 스키 1~3위 입상자들 ②일반부 여자 스키 1~3위 입상자들(사진 가운데 대리수상) ③일반부 남자 스노보드 1위에 오른 박현기씨 ④일반부 여자 스노보드 2위에 오른 김선주씨와 1위 노현진씨(사진 오른쪽).

완주 전지훈련팀 ‘북적’ 지역 상가들은 ‘들썩’

전국 10곳 유소년축구팀, 동계훈련 돌입
선수·학부모들 경기장 주변 상가 이용

완주군이 동절기 전지훈련 선수들로 북적이고 있다.

13일 완주군은 전국의 유소년 축구팀 10곳이 완주군을 찾아 동계 전지훈련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등 전국 각지에서 500명 이상의 유소년 축구선수, 코치진들이 완주군을 찾아 약 2주간의 일정으로 훈련에 돌입,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들은 완주에 머무르는 동안 모든 체제비를 관내에서 소비하고, 주말에는 학부모들이 방문해 경기장 주변 식당, 카페, 숙박업소를 이용하면서 지역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군은 이번 전지훈련 유치로 1,000명 이상이 방문한 것으로 분석, 경제 파급효과가 5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선수단이 훈련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공체육시설을



유지, 보수하고, 숙박업소, 식당, 지역 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선수들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고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다”며 “전지훈련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재방문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에서는 스포츠마케팅을 위해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 전국 승마대회, 국제 유·청소년테니스대회, 환경경 전국파크골프대회 등 다양한 종목의 대회를 유치하며 스포츠의 중심지로 각광받고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국동계체전 사전경기
빙상 최지현, 전북 첫 메달

쇼트트랙 여자일반부 500m銅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한 전북 선수단의 첫 메달이 빙상 종목에서 나왔다.

13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전국동계체전(2월 18~21일) 사전경기로 빙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전북 선수단이 첫 동메달을 수확했다.

쇼트트랙 여자일반부 500m 경기에 나선 최지현(전북도청)이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며 첫 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전북에서는 33명의 선수가 빙상 종목에 출전했으며 쇼트트랙과 스피드 피겨 종목이 순차적으로 사전경기로 진행된다.

전북체육회 정강선 회장은 “첫 메달을 시작으로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단이 선전을 펼쳐 좋은 성적을 거두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은빛 설원 위에서 ‘질주’

제11회 무주 반딧불배 스키·스노보드대회 성료

일반부 스키 1위 - 남자 이치원씨 · 여자 유나래씨

일반 스노보드 1위 - 남자 박현기씨 · 여자 노현진씨

중고등 스키 1위 - 남자 서수민군 · 여자 우혜빈양

초등부 스키 1위 - 남자 최민겸군 · 여자 손단아양

전국 스키·스노보드 동호인들이 무주 덕유산을 하얗게 물든 은빛 설원 위를 달렸다.

전주매일신문사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스키협회가 주관하는 ‘제11회 무주 반딧불배 전국 스키·스노보드대회’가 지난 9~10일 무주 덕유산리조트 스키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10일 열린 본 경기는 스키, 스노보드 등 종목별로 나눠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서 일반부 스키 부문에 남자 이치원씨·여자 유나래씨

가, 일반부 스노보드 부문에 남자 박현기씨·여자 노현진씨가 1위에 올랐다.

일반부 스키 부문 2위에 남자 김진안씨·여자 오혜정씨, 3위에 남자 김용빈씨·여자 최은지씨가 차지했으며, 일반부 스노보드 부문 2위에 남자 홍동기씨·여자 김선주씨, 3위에 남자 박상수씨·여자 정경은씨가 차지했다.

이어 중고등부 스키 부문 1위에 남자 서수민군, 2위는 이성용군, 3위는 김규빈군이 차지했다. 중고등

부 여자 스키는 우혜빈양 1위를 차지했다.

중고등부 스노보드 부문에서 남자 1위는 김승수군, 2위는 이한강군, 3위는 김재유군이 차지했으며, 중고등부 여자 스노보드 1위는 우혜빈양이 차지했다.

초등부 스키 부문에서는 최민겸군과 손단아양이 남자·여자 각각 1위에 올랐으며, 이제이군과 이투하양이 남자·여자 각각 2위, 김가빈군과 윤서하양이 남자·여자 각각 3위에 올랐다.

앞서 대회 첫날인 9일에는 스키·스노보드대회 성공 개최 축하 초청 음악회가 덕유산리조트 내 만선 카페테리아 2층 홀에서 열렸다.

송미령 예원대학교 융합조형디자인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은 음악회에서 김민석 명창, 박보성 색소폰연주자, 김인하 첼리스트, 석상근 바리톤, 송난영 소프라노가 무대 위에 올라 축하공연을 펼쳤다. /김재훈 기자

온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순창군을 사랑하는 마음

고향사랑기부제로

전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기부한도 : 연간 최대 2,000만원)

기부방법

- 대면납부 : 농협은행 방문신청(전국 농축협 어디나 가능, 단위농협 포함)

신분증 지참
기탁서 작성
기부(현금 또는 카드)
답례품 선택 및 배송
- 인터넷 납부(고향사랑e음 ilovegohyang.go.kr)

기부자 인증
(거주지·한도 확인)
기부금 결제
(계좌이체·신용카드 등)
답례품 선택
(기부액의 30%)
답례품 배송
(배송지 선택, 배송내역 조회)

기부자 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시 16.5% 공제
- 답례품 : 기부금의 30%내 지역특산물 등 제공 ※순창고추장, 장내미생물검사키트, 별초대행서비스 이용권 등

기부금 사용처

-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지사업에 사용

기부문의 | 순창군청 인구정책과 ☎ 063)650-1592